

생활사건연구에 대한 비평적 분석

—최근의 연구논문 100편을 중심으로—

고 성 희
〈전북의대부속간호전문대학〉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A. 이론 구성에 따른 내용 분석

B. 이론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

III. 결 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I. 서 론

연구비평(research critique)은 특별한 기준을 사용하여 연구의 강점, 제한점, 및 일반적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비판적이고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평가로써, 연구의 주요한 면과 특성을 확인하고 요약하여 서술·설명하는 연구고찰(research review)과는 다르다.¹⁾ 연구비평의 기능은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하나는 연구를 보완하며 나아가서는 더 나은 연구를 하도록 돕는다. 즉 연구설계(research design)의 보완, 이론적 틀의 명료화, 연구도구의 개선, 연구경향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도록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반복연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돕는다.²⁾

전문직 간호원은 수행된 연구에 대해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지녀야 한다.³⁾ 왜냐하면 자신의 업무 분야에 관한 지식을 평가할 수 없는 간호원은 기술인

(technician)에 불과하며, 또한 잘 지지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이론이나 지식을 간호실무에 적용한다면 간호대상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원은 간호실무에 근거가 되는 이론과 지식에 대한 전전한 평가를 하여, 그것을 폭넓게 건설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련된 지식을 더욱 발달시켜야 한다.⁴⁾

오늘날 간호의 초점이 전인간 상황으로 확대됨에 따라 스트레스와 그것이 인간 유기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그 일례로 지난 20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스트레스원(social stressor)인 생활사건(life events)과 질병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중 다수의 연구는 이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또한 상당수의 연구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들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비평이 시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구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서술된 변수(variable), 연구의 근거가 된 이론에 대한 비평적 고찰의 결여,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의문시하도록 하는 부적절하고 편중적인 표본의 문제점은 간호분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강분야에서 행해진 연구들에 대해서도 비평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⁵⁾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간호분야에서 수행된 생활사건연구에 국한시키지 않고 생활사건을 다룬 일련의 연구들을 모두 비평 대상으로 삼았다.

생활사건연구는 '스트레스 이론의 몇 가지 명제들을

1) Leininger, M.M., "The research critique: Nature, function, and art", Nur Res, Vol. 17, No.5, 1968, pp.444~445.
 2) Ibid., pp.445~446.
 3) Polit, D.F. & Hungler, B.P., Nursing research (New York, Lippincott Co., 1978), p.615.
 4) Hardy, M.E., "Theories: Components, development, evaluation", Nur Res, Vol.23, No.2, 1974, p.100.
 5) Toronyay, R.D., "Nursing research— The road ahead," Nur Res, Vol.26, No.6, 1977, p.405.

통합하여 발달된 이론⁶⁾에 대한 연구이며, Rahe 등은 이들 일련의 연구를 '생활 스트레스와 질병 모형(A life stress and illness model)⁷⁾'이라고 칭하였다. 따라서 연구비평의 기준으로는 간호분야에서 이론 평가시에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사용하였다. 간호분야에서 지금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Reynold, Ellis, Hardy의 평가기준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기 사용된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대등스이하게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평가기준을 택해도 무방하다고 여겨지나, 본 논문에서는 이론의 구조(구성요소) 및 진술(statements)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세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Hardy의 기준을 택하여 생활사건연구를 비평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평의 접근방법으로는 연구의 모든 측면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전체적 접근방법(whole study approach)이 아닌, 어떤 측면만을 선택하여 비평하는 부분적 분석방법(partial analysis)을 택하였다. 부분적 분석방법은 한 부분에 대해 깊이있게 자세히 조사할 수 있어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⁸⁾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64~1983년간의 국내외 연구논문 100편을 대상으로 Hardy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론 구성에 따른 내용 분석을 하고, 이론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함이다.

II. 본 론

생활사건연구를 Hardy의 기준⁹⁾¹⁰⁾에 의거하여 이론 구성에 따른 내용 분석과 이론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이론 구성에 따른 내용 분석에는 개념, 진술, 개념들간의 관계, 모형의 4요소가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념(concepts): 개념이란 특정한 한 가지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어떤 측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용어나 단어로 나타낼 수 있다. 개념은 근원적인 것(primitive term or concept)과 도출된 것(derived term or concept)으로 구분되며, 추상성 또는 일반성(abstractness or

generality)의 정도에 따라서는 변화할 수 있는 개념(variable concept)과 변화할 수 없는 개념(nonvariable concept)으로도 구분된다. 그리고 개념의 정의(definition)는 타당성을 나타내는 이론적인 것(theoretical definition)과 구체성을 나타내는 조작적인 것(operational definition)을 포함한다. 그런데 개념은 추상성(abstractness), 검증성(testability), 상호일치성(intersubjectivity)을 지녀야 한다.

진술(statements): 진술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개념들을 함께 연결한 과학적인 개념의 집합으로서, 개념과 개념사이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개념들간의 관계(relationships between concepts): 개념들간의 관계란 이론에 포함되는 개념사이의 논리적인 구조를 말한다. 개념간의 관계유형으로는 대칭관계(symmetrical relation), 비대칭관계(asymmetrical relation), 인과관계(causal relation), 확률관계(probabilistic relation), 시계서열관계(time order relation), 동시관계(concurrent relation), 충분관계(sufficient relation), 조건관계(conditional relation), 필요관계(necessary relation)의 9가지가 있다. 또한 개념들간의 관계는 + (순관계)나 - (역관계)로 나타나는 표시(sign)와 도해(diagram), 그리고 연관표(matrix)를 이용한 구조화론 통해 쉽게 알아본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다.

모형(models): 모형은 이론이나 복잡한 사건, 구조, 체계를 간단명료하게 나타낸 청사진(blueprint)이다. 그러므로 변수들간의 관계는 모형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

둘째, 이론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에 있어서는 Hardy가 제시한 6가지 기준—의미와 논리적인 적의성(meaning & logical adequacy), 조작적·실증적인 적의성(operational & empirical adequacy), 보편성(generality), 이해에 대한 기여(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예측성(predictability), 및 실용적인 적의성(pragmatic adequacy)—중 본 연구에서는 의미와 논리적인 적의성과 조작적·실증적인 적의성의 두 측면에 국한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와 논리적인 적의성: 기본가정, 개념, 개념들간

6) 김의숙, "간호이론의 발달과 활용", 간호학회지, 제10권, 제1호, 1980, p. 6.

7) Rahe, R.H., Floistad, I., et. al., "A model for life changes and illness research: Cross-cultural data from the Norwegian Navy", Arch Gen Psychiat, Vol.31, 1974, pp.172~177.

8) Leininger, M.M., op. cit., pp.448~449.

9) Hardy, M.E., op. cit., pp.100~107.

10) 김수지, 간호학이론 <6~16>, 간협신보, 1980.12.4~1981.2.26.

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정의 타당성, 개념들에 부여된 의미의 타당성, 및 이론적인 체계의 논리성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이 제시하는 기본가정과 각 개념 그리고 명제사이에 단절(discontinuities), 상위(discrepancies), 모순(contradictions)되는 사실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조작적·실증적인 적의성 : 이론의 검증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이론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론에 조작적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작적인 적의성은 각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의 각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론적 정의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규명해 봄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실증적인 적의성은 그 이론이 얼마나 많이 지지되는가를 말하는 때, 지지되는 증거가 많으면 실증적인 적의성이 있다고 평가가 된다. 따라서 이는 이론적인 주장과 실제적인 증거가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사정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1964~1983년간의 생활사건연구 100편을 분석하고자 한다.

A. 이론 구성에 따른 내용 분석

1. 주요 개념

생활사건연구 100편에서 나타난 주요 개념으로는 '스트레스', '생활사건', '질병', '질병발생'이 있으며, 이러한 주요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스트레스(Stress): 스트레스란 Selye의 이론에 근거하여 스트레스원(stressor)에 대한 유기체의 즉각적인 또는 지연된 반응 즉, 요구를 일으킨 생활사건(life events)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스트레스는 생활사건의 경험정도로서 평가되고 있다.

b. 생활사건(Life events): 생활사건 또는 생활변화사건(life change events)은 개인의 현 생활양식에 변화를 나타내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모든 상황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원(social stressor)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SRE(The Schedule of Recent Experience) 또는 SRRS(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에 포함된 43개의 확인된 사건에 대해 제한된 기간동안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 측정되고 있다.

c. 질병(Illness): 생활사건 즉 사회적 스트레스원에 대한 충격으로 초래되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손상(impairment)으로 나타내고 있다.

d. 질병발생(Illness onset): 질병의 임상적인 증상이 출현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

위의 네 개념중에서 '스트레스'와 '질병'은 근원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생활사건'과 '질병발생'은 도출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스트레스원(social stressor)인 생활사건으로 사정, 설명이 되는 '스트레스'가 추상개념(construct)인데 반하여, '생활사건', '질병', '질병발생'은 구체적 개념(concrete concept)이라 할 수 있다. 이 네 주요 개념들은 모두 변화할 수 있는 개념에 속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두 개념은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제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두 개념은 이론적 정의만이 제시되었다.

2. 진술(Statements)

생활사건연구 논문에 나타난 진술은 다음과 같다.

- 경험한 생활사건의 정도, 역동성, 변이성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 생활사건은 신체질환뿐 아니라 정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 생활사건과 질병간의 관계는 중재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오래전에 경험한 생활사건보다 최근의 생활변화사건이 많을수록 가까운 장래에 더욱 아프기 쉽다.
- 생활변화사건이 적을수록 경한 질병이 많을수록 중한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 생활사건은 경한 질병보다 중한 질병을 예측하기가 더욱 쉽다.
- 단기간내에 복합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질병발생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죽음에도 관련될 수 있다.

이는 생활사건과 질병간에 관계가 있다고 제시한 논문에 나타난 진술들로서, 주로 생활사건과 질병의 개념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생활사건은 독립변수이며 질병은 종속변수가 된다. 중재변수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지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활변화사건의 축적으로 기인된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진술의 미비로, 생활사건연구에 나타난 진술들은 주요 개념간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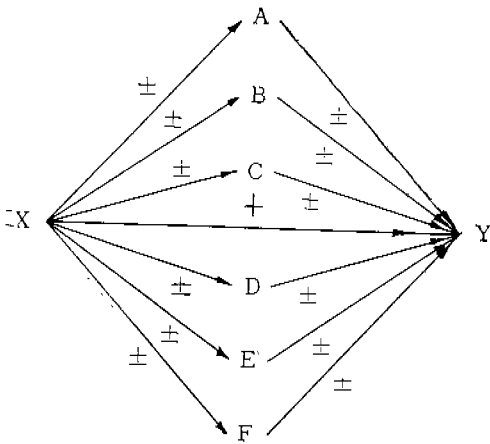
3. 선행연구에 나타난 주요 개념간의 관계

생활사건연구 중 생활사건과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다수의 논문에서 나타난 주요 개념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면, 비대칭적 관계(생활변화사건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나, 생활변화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이 초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제서열관계(생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초래된다), 확률관계(생활사건은 아마 질병을 초래할 것이다), 조건관계(생활사건은 질병을 초래할 것이다. 단, 중재변수의 변이성에 따라 좌우된다) 및 필요관계(단지 생활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만 질병이 초래될 것이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념들간의 관계를 도해(표 1) 및 연관표(표 2)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도해



- 개념 : X 생활사건
 A 사회인구학적 특성
 B 지각
 C 대처방법
 D 지지체계
 E 성격
 F 통제위
 Y 질병
- 관계의 표시 : 순관계 +
 역관계 -
 알지못함 ?
- 관계의 유형 : 대칭관계 ↔
 비대칭관계 →

유형, 도해 그리고 연관표에 의해 분석된 개념들간의 관계를 본 때, 앞서 지적한 조작적 정의의 결여와 중재변수에 대한 탐색이 세분화되어 이루어지지 않아서 Causality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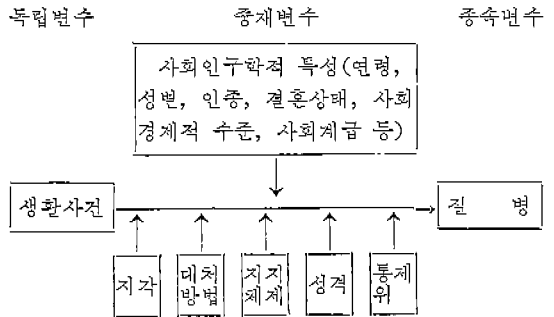
4. 개념적 모형

생활사건연구 중 생활사건과 질병과의 관계를 지지하고 있는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변수를 연결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개념적 모형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표 3).

(표 2) 연관표

	X	A	B	C	D	E	F	Y
X		±	±	±	±	±	±	±
A			+	+	+	?	?	±
B				?	?	?	+	±
C					?	?	?	±
D						?	?	±
E							+	±
F								±
Y								

(표 3) 생활사건연구의 개념적 모형



생활사건연구에서 나타난 변수를 연결시켜서 위와 같은 모형으로 표시해 보았다. 그러나 중재변수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만 생활사건과 질병간의 관계를 확실히 제시하는 보다 명확한 개념적 모형이 형성되리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생활사건연구 중 생활변화사건과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지적한 논문을 대상으로, 주요 개념, 진술, 개념들간의 관계, 모형등 이론 구성에 따라 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보았다. 내용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의 이론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에서 생활사건과 질병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표명한 논문들을 포함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B. 이론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

1. 의미와 논리적인 적의성

생활사건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스트레스'의 개념 및

이 개념에 부여된 의미의 타당성은 상호일치성, 검정성, 추상성의 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스트레스'라는 개념의 상호일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래 스트레스란 추상성이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에케하다고 지적한 연구자들조차 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정의들 한 경우라 한지라도 지나치게 광의로 정의하여 연구에서 이 개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른 차원이나 과정(divergent dimensions or processes)으로 사용되고 있다.¹¹⁾ 예를 들면 Mechanic은 스트레스를 상황에 대해 개개인이 갖고 있는 반응으로 정의하고, Basowitz와 그 동료들 그리고 Janis는 상황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과는 무관한 상황의 질(quality of situation)로 정의하고 있다. Dohrenwend, 그리고 몇몇 기계적 모형(mechanical model)의 지지자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원, 짐(loads), 또는 유해한 자극에 대한 내적 반응으로, Dunbar는 스트레스를 자극의 속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Alexander, 및 Wolff는 스트레스를 개개인의 자극에 대한 반응뿐 아니라 자극의 질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스트레스 개념의 지시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은 지식의 통합을 매우 어렵게 만들며, 또한 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연구한 연구결과들을 의미있게 해석하고 통합하

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공통적 정의가 요구된다. 스트레스의 공통적 정의는 생리적·생화학적·심리적·사회문화적諸현상을 배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¹²⁾ 이러한 주장에 입각하여 볼 때 생활사건연구에서 활용된 스트레스의 개념은 생리적·생화학적 측면만이 강조된 Selye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 사용의 상호일치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둘째, 검정성에서는 '스트레스'가 SRE, SRRS, 또는 이를 수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표면적으로 개념의 검정성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고 지적되고 있다.^{13)~15)} Dohrenwend는 SRRS와 인터뷰의 두 방법을 통해 생활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터뷰를 통해서 보고된 사건이 SRRS 측정시에는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¹⁶⁾ 측정도구에 제시된 항목들은 포괄적이지 못하여 생활 스트레스의 측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¹⁷⁾¹⁸⁾ 또한 Rahe의 weight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음에 반해,¹⁹⁾²⁰⁾ 개인의 rating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질병발생에 대한 예측적인 힘(predictive power)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²¹⁾²²⁾ 또한 생활사건을 점수화하는 기법(life change scoring technique)에 대한 다른 새로운 탐색이 추후되고 있고 실제로 이를 시도한 연구도 있다.^{23)~26)} 이와

11) Levine, S. & Scotch, N.A., Social Stress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70), p. 8.

12) 천산포, 김조자, 유지수, 간호과정과 기표이론(서울,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1981), p. 258.

13) Rabkin, J.G. & Struening, E.L., "Life events, Stress, and illness", Science, Vol.194, 1976, p. 1015.

14) Papa, L.L., "Responses to life events as predictors of Suicidal behavior", Nur Res, Vol.29, No.6, 1979, pp. 364~368.

15) Brown, G.W., "Life events, Psychiatric disorder and Physical illness", J Psychosom Res, Vol.25, No.5, 1981, p. 464.

16) Dohrenwend, B.S., "Life events as stressors: A methodological inquiry", J Health Soc Behav, Vol.14, 1973, p. 171.

17) Cochrane, R. & Robertson, A., "The life events inventory: A measure of the relative severity of psycho-social stressors", J Psychosom Res, Vol.17, 1973, p. 135.

18) Hough, R.L., Fairbank, D.T., & Garcia, A.M., "Problems in the ratio measurement of life stress", J Health Soc Behav, Vol.17, 1976, p. 72.

19) Nelson, P., et. al., "Variables in the reporting of recent life changes", J Psychosom Res, Vol.16, 1972, pp. 468~469.

20) Schless, A.P. & Mendels, J., "The value of interviewing family and friends in assessing life stressors", Arch Gen Psychiat, Vol.35, 1978, pp. 565~567.

21) Lundberg, U., Theorell, T., & Lind, E., "Life changes and myocardial infarc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life change scaling", J Psychosom Res, Vol.19, 1975, pp. 27~32.

22) Hurst, M.W., Jenkins, C.D., & Rose, R.M., "The assessment of life change stress: A comparative and methodological inquiry", Psychosom Med, Vol.40, No.2, 1978, pp. 136~139.

23) Rubin, R.T., Gunderson, E.K.E., & Arthur, R.J., "Life stress and illness patterns in the U.S. Navy—V. Prior life change and illness onset in a battleship's crew", J Psychosom Res, Vol.15, 1971, pp. 89~94.

24) Ruch, L.O. & Holmes, T.H., "Scaling of life change: Comparison of direct and indirect methods", J Psychosom Res, Vol.15, 1971, pp. 221~227.

25) Rahe, R.H., Fleistad, L., et. al., op. cit., pp. 175~176.

26) Hough, R.L., Fairbank, D.T., & Garcia, A.M., op. cit., p. 81.

같이 측정도구가 지닌 몇 가지 미해결된 문제로 인하여 실제적인 면에서 검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스트레스'라는 개념의 추상성은 대상, 장소, 시간 측면에서의 활용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Holmes와 Rahe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교육정도, 사회계층, 세대, 종교, 인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집단에 SRRS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²⁷⁾ 다수의 연구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28)~38)}

그러나 이점을 표명한 연구도 적지 않다.

그러한 연구들중에는 측정도구가 20~30세에 이르는 초기 성인기의 사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Uhlenhuth등은 18세의 연령층이 60세이상의 연령층보다 2배이상의 생활사건을 보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³⁹⁾ Nelson 등도 20대의 환자가 50대의 환자보다 대략 2배나 많은 생활사건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⁴⁰⁾ Masuda 등도 30세이하, 30~60세, 60세이상의 세 연령집단으로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 60세이상의 연령층이 생활사건을 유의하게 더 낮게 보고하였음을 지적하였다.⁴¹⁾ 그밖에도 다수의 연구가 생활사건과 연령간에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42)~47)} 이것은 초기 성인기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아니던 정도의 특성으로 기인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후자의 가능성이 Langner와 Michael이 1,660명의 여러 연령층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지지되었다.⁴⁸⁾ Rahe도 연령이 젊고 미혼인 사람의 LCU(Life Change Unit) 점수와 연령이 많고 기혼인 사람의 LCU 점수는 명백히 다른 생활사건에서

- 27) Holmes, T.H. & Rahe, R.H.,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 Psychosom Res, Vol.11, No.8, 1967, pp. 213~218.
- 28) Masuda, M. & Holmes, T.H.,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A cross-cultural study of Japanese and Americans", J psychosom Res, Vol.11, 1967, pp.227~237.
- 29) Komaroff, A.L., Masuda, M., & Holmes, T.H.,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A comparative study of Negro, Mexican, and White Americans," J Psychosom Res, Vol.12, 1968, pp.121~128.
- 30) Harmon, D.K., Masuda, M., & Holmes, T.H.,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A cross-cultural study of Western Europeans and Americans," J Psychosom Res, Vol.14, 1969, pp.391~400.
- 31) Rahe, R.H., "Multi-cultural correlations of life change scaling: America, Japan, Denmark and Sweden," J Psychosom Res, Vol.13, 1969, pp.191~195.
- 32) Rahe, R.H., Lundberg, U., et. al.,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A comparative study of Swedes and Americans", J Psychosom Res, Vol.15, 1971, pp.241~249.
- 33) Ruch, L.O. & Holmes, T.H., op. cit.
- 34) Coddington, R.D.,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 of children," J Psychosom Res, Vol.16, 1972, pp.7~18, 205~213.
- 35) Cochrane, R. & Robertson, A., op. cit., pp.135~139.
- 36) Schless, A.P., Schwartz, L., et. al., "How depressives view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Brit J Psychiat, Vol. 125, 1974, pp.406~410.
- 37) Lahniens, C.E. & White, K., "Changes in environmental life event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iatric hospital admissions", J Nerv Ment Dis, Vol.163, No.3, 1976, pp.154~158.
- 38) Horowitz, M., et. al., "Life event questionnaires for measuring presumptive stress", Psychosom Med, Vol.39, No. 6, 1977, pp.412~431.
- 39) Uhlenhuth, E.H., et. al., "Symptom intensity and life stress in the city," Arch Gen Psychiat, Vol.31, 1974, pp. 759~763.
- 40) Nelson, P., et. al., op. cit., pp.465~471.
- 41) Masuda, M. & Holmes, T.H., "Life events: Perceptions and frequencies," Psychosom Med, Vol. 40, No.3, 1978, pp.238~251.
- 42) Uhlenhuth, E.H. & Paykel, E.S., "Symptom intensity and life events," Arch Gen Psychiat, Vol.28, 1973, pp.474~475.
- 43) Dekker, D.J. & Webb, J.T., "Relationships of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to psychiatric patient status, anxiety and social desirability," J Rsyohosom Res, Vol.18, 1974, p.128.
- 44) Uhlenbuth, E.H., et. al., op. cit., pp.759~762.
- 45) Payne, R.L., "Recent life changes and the reporting of psychological states," J Psychosom Res, Vol.19, 1975, pp. 99~101.
- 46) Chiriboga, D.A., "Life event weighting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J Psychosom Res, Vol.21, 1977, pp. 418~421.
- 47) Jalowiec, A. & Powers, M.J., "Stress and coping in hypertensive and emergency room patients", Nur Res, Vol.30, No.1, 1981, pp.12~13.
- 48) Rabkin, J.G. & Struening, E.L., op. cit., p.1016.

근거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⁴⁹⁾ 직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령뿐 아니라 성별⁵⁰⁾⁻⁵⁵⁾, 결혼상태⁵⁶⁾⁻⁶²⁾, 사회경제적상태⁶³⁾⁶⁴⁾, 사회계급⁶⁵⁾ 등도 SRRS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나, 일치된 견해는 없다.

생활사건의 경험유무도 ratings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⁶⁶⁾ Masuda 등은 최근에 경험한 사건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할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⁶⁷⁾ 그런데 상상의 또는 예견된 생활사건에 대해 실제로 경험한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할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유무에 따른 ratings에 있어서의 차이가 생활변화충격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 유무에 따라 생활사건이 다르게 평가되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⁶⁸⁾

Uhlenhuth 등은 정신과 환자를 입원환자, 낮병동환자, 외래환자로 구분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입원환자가 외래 및 낮병동환자보다 더 적은 생활사건을 보고하였다고 제시하였다.⁶⁹⁾ Dohrenwend는 지역사회 거주자, 지역사회 지도자, 정신과 환자의 표본을 대상으로 개방적인 질문과 SRRS의 두 방법을 통해 생활사

건을 조사한 결과, SRRS항목 가운데 적은 수만이 주요한 사건으로 지적되었으며, 다른 요인은 다른 종류의 사건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Wershow와 Reinhardt도 최저 수준의 고용인으로서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8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행하여, 입원 이전 해(year)의 LCU점수가 매우 낮았으며 표본의 19%는 아무런 생활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⁷⁰⁾ 이들은 연구 대상이 되는 표본에 대한 SRRS의 적절성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보고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요인이 생활변화의 지각(perception)에 있어서 집단간에 중요한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연구도 있다.⁷¹⁻⁷⁴⁾ 획득된 생활사건총점이 흔히 질병의 예측인자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소하다 할지라도 집단간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어떤 특별한 생활사건이 획득된 충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⁷⁵⁾ 보인다.

거우기 Holmes와 Rahe의 SRRS를 수정한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Heisel은 어린이 생활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Coddington은 학령전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연령집단에 맞도록 문항을 제작하였다. Houg

49) Rahe, R.H., "Subjects' recent life changes and their near-future illness reports: Previous work and new directions of study", In Conceptual models for nursing practice, eds. by Piehl J.P. & Roy S.C. (Prentice-Hall, A.C.C., 1974), p. 75.

50) Nelson, P., et. al., op. cit.

51) Uhlenhuth, E.H. & Paykel, E.S., op. cit., pp. 473~477.

52) Rahe, R.H. (1974), op. cit., pp. 63~81.

53) Roskies, E., Iida-Miranda, M.L., & Strobel, M.G., "The applicability of the life events approach to the problems of immigration", J Psychosom Res, Vol.19, 1975, pp. 235~240.

54) Chiriboga, D.A., op. cit., pp. 415~422.

55) Masuda, M. & Holmes, T.H. (1978), op. cit., pp. 236~261.

56) Cochrane, R. & Robertson, A., op. cit.

57) Uhlenhuth, E.H. & Paykel, E.S., op. cit.

58) Rahe, R.H. (1974), op. cit.

59) Uhlenhuth, E.H., et. al., op. cit.

60) Payne, R.L., op. cit.

61) Masuda, M. & Holmes, T.H. (1967), op. cit.

62) Jalowicz, A. & Powers, M.J., op. cit., pp. 10~15.

63) Nelson, P., et. al., op. cit.

64) Masuda, M. & Holmes, T.H. (1978), op. cit.

65) Uhlenhuth, E.H. & Paykel, E.S., op. cit., pp. 474~476.

66) Hurst, M.W., Jenkins, C.D., & Rose, R.M., op. cit., pp. 128~138.

67) Masuda, M. & Holmes, T.H. (1978), op. cit., p. 253.

68) Hurst, M.W., Jenkins, C.D., & Rose, R.M., op. cit., p. 128.

69) Uhlenhuth, E.H. & Paykel, E.S., op. cit.

70) Rabkin, J.G. & Struening, E.L., op. cit., p. 1016.

71) Caplan, R.D., "A less heretical view of life change and hospitalization," J Psychosom Res, Vol. 19, 1975, p. 247.

72) Hough, R.L., Fairbank, D.T., & Garcia, A.M., op. cit., pp. 70~82.

73) Hurst, M.W., Jenkins, C.D., & Rose, R.M., op. cit., pp. 127~128.

74) Masuda, M. & Holmes, T.H. (1978), op. cit., p. 237.

75) Hurst, M.W., Jenkins, C.D., & Rose, R.M., op. cit., p. 139

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Universal and Group Specific Life Events Scales'라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Volicer와 Bohannon은 SRRS에 근거하여 임원한 내과, 외과 및 정신과 환자가 경험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Hospital Stress Rating Scale'을, Dohrenwend와 그 동료는 정신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Psychiatric Epidemiological Research Interview Life-Events Scale'을 만들었다.⁷⁶⁾ 이와같이 새로이 수정되고 개발된 도구들의 타당도 및 신뢰도가 SRE나 SRRS보다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측정도구들이 제작된 것은 그만큼 적용 가능한 대상과 장소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념 활용의 시간적 측면을 보면 생활사건연구에서는 질병발생전에 초래된 생활사건에 국한시켜서 질병과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시간의 전후관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사건은 질병의 결과로써 초래되기도 하며,⁷⁷⁾⁻⁸²⁾ 또는 스트레스에 적응하려는 시도으로써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⁸³⁾⁸⁴⁾ Grant 등은 정신과 외래환자 89명과 비환자 107명을 대상으로 18개월동안에 걸쳐 시행한 prospective study에서 생활사건과 증상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를 다시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활사건과 질병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34.7%, 증상의 변화없이 생활의 변화만 초래된 경우가 21.4%, 생활사건이 초래된 후 증상이

뒤따라 발생한 경우가 5.4%로 나타났으며, 기타 38.3%는 분류가 불가능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⁸⁵⁾ 따라서 대다수가 retrospective study를 하였기 때문에, 오로지 질병발생에 선행되어서 일어난 생활사건만이 조사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또한 SRE, SRRS는 주어진 기간동안의 새로운 최근의 생활변화 즉 개인의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1차원적인 측정만을 할 수 있으며,⁸⁶⁾⁸⁷⁾ 장기 또는 만성적인 문제⁸⁸⁾ 및 예측되는 변화를 측정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지속되거나 예정된 생활변화가 중요한 스트레스원일 경우, 최근에 경험한 생활사건의 측정만으로 그 개인의 스트레스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SRE, SRRS로 측정되는 스트레스의 개념이 대상, 장소, 시간에 제한을 받으며 포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본 때, 생활사건연구에서 다룬 스트레스 개념의 추상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다음, 생활사건연구에 제시된 진술, 개념들간의 관계 및 모형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생활사건연구에서 진술, 개념들간의 관계 및 모형은 생활사건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둘간의 관계는 생활사건의 질적, 양적 차원으로 측정되었다.

-
- 76) Miller, T.W., "Life events scaling: Clinical methodological issues," *Nur Res*, Vol. 30, No. 5, 1981, pp. 316~320A.
 77) Paykel, E.S., Myers, J.K., et. al., "Life events and depression," *Arch Gen Psychiat*, Vol. 21, 1969, pp. 754~760.
 78) Hudgens, R.W., Robins, E., & Delong, W.B., "The reporting of recent stress in the lives of psychiatric patients," *Brit J Psychiat*, Vol. 117, 1970, pp. 635~643.
 79) Rahe, R.H. & Paasikivi, J., "Psychosocial factors and myocardial infarction: II. An outpatient study in Sweden," *J Psychosom Res*, Vol. 15, 1971, pp. 36~38.
 80) Myers, J.K., et. al., "Life events and mental status: A longitudinal study," *J Health Soc Behav*, Vol. 13, 1972, p. 403.
 81) Paykel, E.S., Prusoff, B.A., & Myers, J.K., "Suicide attempts and recent life events: A controlled comparison," *Arch Gen Psychiat*, Vol. 32, 1975, p. 333.
 82) Schless, A.P., Teichman, A., et. al., "The role of stress as a precipitating factors of psychiatric illness," *Brit J Psychiat*, Vol. 130, 1977, pp. 21~22.
 83) Fontana, A.F., "Prehospitalization coping styles of psychiatric patients: The goal-directedness of life events," *J Nerv Ment Dis*, Vol. 155, No. 11, 1972, p. 319.
 84) Mattila, V.J. & Salokangas, R.K.R., "Life changes and social group in relation to illness onset," *J Psychosom Res*, Vol. 21, 1977, pp. 172~173.
 85) Grant, I., Sweetwood, H.L., et al., "Patterns in the relationship of life events and psychiatric symptoms over time," *J Psychosom Res*, Vol. 22, 1978, pp. 183~191.
 86) Theorell, T. & Rahe, R.H., "Psychosocial and myocardial infarction-I. An inpatient study in Sweden," *J Psychosom Res*, Vol. 15, 1971, p. 30.
 87) Luckmann, J. & Sorensen, K.C., *Medical-Surgical Nursing* (Saunders Co., 1980), 2nd ed., p. 43.
 88) Husaini, B.A. & Neff, J.A., "Social cla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The role of life change events and locus of control," *J Nerv Ment Dis*, Vol. 169, No. 10, 1981, p. 641.

Holmes, Rahe와 그 동료들은, '모든 생활변화는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가정하에서, 생활변화의 개념에 대한 단일차원(unidimensionality) 즉, 두 변수간의 관계(bivariate relationship)만을 다루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생활변화가 단일차원적인 개념이라는데 대해 의문을 가지고 생활변화의 진정한 본질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생활변화 사건(life change events)을 생활장소(life area),^{89)~94)} 사회적 바람직함(social desirability),^{95)~101)} 이득 또는 손실(gain or loss)¹⁰²⁾에 비추어, 그리고 결혼이나 어린이 출생등의 사회장(social field)으로 들어감(entrances) 또는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등 사회장으로부터 나감(exits)^{103)~107)} 등에 비추어 분류하고, 이 생활변화의 질적 차원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바람직함, 이득, 들어감으로써 분류된 사건간에, 그리고 바람직하

지 못함, 손실, 나감으로써 분류된 사건간에 대다수의 항목이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¹⁰⁸⁾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바람직한 생활사건으로, 후자를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사건으로 간주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사건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도 건강상태와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수있다.¹⁰⁹⁾¹¹⁰⁾ 특히 Dohrenwend는 심리적 손상이 생활변화점수(life change scores)와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변화점수(desirability scores)의 둘 중 어느 것과 더욱 높게 상관관계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결과 생활변화점수가 심리적 손상의 우세한 예측인자였다고 결론을 내렸다.¹¹¹⁾ Ruch도 이에 동의하였다.¹¹²⁾

이들 주장과는 반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질병상태와 더욱 유의하게 관련되었다고 보고한 연구도 다수이다.^{113)~121)} 이는 바람직한 사건과 바람직하지 못

89) Paykel, E.S., Myers, J.K., et. al., op. cit., 753~760.

90) Myers, J.K., Lindenthal, J.J., & Pepper, M.P., "Life events and psychiatric impairment," J Nerv Ment Dis, Vol. 152, No. 3, 1971, pp.149~157.

91) Myers, J.K., et. al., op. cit., pp.398~406.

92) Paykel, E.S., Prusoff, B.A., & Myers, J.K., op. cit., pp.327~333.

93) Jacobs, S. & Myers, J., "Recent life events and acute schizophrenic psychosis: A controlled study," J Nerv Ment Dis, Vol. 162, No.2, 1976, pp. 75~87.

94) Ruch, L.O.,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life change," J Health Soc Behav, Vol. 18, 1977, pp.71~83.

95) Paykel, E.S., Myers, J.K., et. al., op. cit.

96) Myers, J.K., Lindenthal, J.J., & Pepper, M.P. (1971), op. cit.

97) Myers, J.K., et. al., op. cit.

98) Dohrenwend, B.S., op. cit., pp.167~175.

99) Paykel, E.S., Prusoff, B.A., & Myers, J.K., op. cit.

100) Jacobs, S. & Myers, J., op. cit.

101) Ruch, L.O., op. cit.

102) Dohrenwend, B.S., op. cit.

104) Myers, J.K., Lindenthal, J.J., & Pepper, M.P. (1971), op. cit.

105) Myers, J.K., et. al., op. cit.

106) Paykel, E.S., Prusoff, B.A., & Myers, J.K., op. cit.

107) Jacobs, S. & Myers, J., op. cit.

108) Goldberg, E.L. & Comstock, G.W., "Life events and subsequent illness," Am J Epidemiology, Vol. 104, No. 2, 1976, p.147.

109) Rahe, R.H., Biersner, R.J., & Ryman, D.H., "Psychosocial predictors of illness behavior and failure in stressful training", J Health Soc Behav, Vol. 13, 1972, pp.393~397.

110) Schless, A.P., Schwartz, L., et. al., op. cit.

111) Dohrenwend, B.S., op. cit.

112) Ruch, L.O., op. cit.

113) Paykel, E.S., Myers, J.K., et. al., op. cit.

114) Myers, J.K., Lindenthal, J.J., & Pepper, M.P. (1971), op. cit.

115) Fontana, A.F., op. cit., pp.311~321.

116) Myers, J.K., et. al., op. cit.

117) Grant, I., Kyle, G.C., et. al., "Recent life events and diabetes in adults," Psychosom Med, Vol. 36, No. 2, 1974, pp.121~128.

118) Paykel, E.S., Prusoff, B.A., & Myers, J.K., op. cit.

119) Jacobs, S. & Myers, J., op. cit.

120) Ruch, L.O., op. cit.

121) Cooke, D.J. & Greene, J.G., "Types of life events in relation to symptoms at the climacterium," J Psychosom Res, Vol. 25, 1981, pp.5~11.

한 사건을 분리시키려는 것이 타당하며,¹²²⁾¹²³⁾ 이를 분리시키지 않고 만약 관계가 없거나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사건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할 경우에 생활사건과 질병간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¹²⁴⁾¹²⁵⁾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생활변화가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상쇄하지는 않는가? 바람직한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사건들에 대해 신체에 있어서 동질의 스트레스원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LCU를 할당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의문으로 남는다.

아동든, 생활변화는 단일차원이 아닌 질적, 양적 측면을 지닌 복합차원적인 개념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종래의 스트레스 모델은 극적이고 유해한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생리적·심리적 반응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는데, 스트레스란 그처럼 극적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며 극적이고 유해한 외상적 사건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되므로 배열순 기준으로 흔히 발생하는 사건에 비하여 수많은 질병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¹²⁶⁾ 생활사건연구는 바람직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을 모두 포함한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질병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다소 유용하다고 본다.

그러나 질병발생과 변화의 정도 및 변화의 바람직함에 대하여 측정된 연구들간에 일치되지 않는 미확정적인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활사건연구에서 나타난 진술과 개념들간의 관계에는 상위와 모순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진술과 개념들간의 관계가 단절됨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생활사건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에 대하여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Holmes와 Rahe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생활변화사건)와 종속변수(질병)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다른 변수에 대하여 엄격히 조사되지 않았다. 이들 연구를 반복 시행하였던 초기에는 주르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전체 변이성(variance)의 12.6%만을 설명하기 때문에,¹²⁷⁾ 중재변수에 대한 더욱 자세한 탐색이 필요하다. (표 2, 3 참조)

개인의 지각,^{128)~131)} 대처기전(coping methods)^{132~141)}

122) Hough, R.L., Fairbank, D.T., & Garcia, A.M., op. cit., pp.72~76.

123) Chiriboga, D.A., op. cit.

124) Caplan, R.D., op. cit., p.248.

125) Hough, R.L., Fairbank, D.T., & Garcia, A.M., op. cit.

126) Levine, S. & Scotch, N.A., op. cit., pp.266~267.

127) Warheit, G.Z., Holzer III, C.E., & Schwab, J.J., "An analysis of social class and racial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atology: A community study," J Health Soc Behav, Vol. 14, 1973, pp.291~299.

128) Hudgens, R.W., Robins, E., & Delong, W.B., op. cit.

129) Katz, J.L., et. al., "Stress, distress, and ego defenses," Arch Gen Psychiat, Vol.23, 1970, pp.131~142.

130) Thurlow, H.J., "Illness in relation to life situation and sick-role tendency," J Psychosom Res, Vol. 15, 1971, pp. 73~88.

131) Masuda, M. & Holmes, T.H. (1978), op. cit.

132) Katz, J.L., et. al., op. cit.

133) Hamburg, D.A., "Coping behavior in life-threatening circumstances", Psychother Psychosom, Vol. 23, 1974, pp. 13~25.

134) Bell, J.M., "Stressful life events and coping methods in mental-illness and-wellness-behaviors," Nur Res, Vol. 26, No.2, 1977, pp.136~141.

135) Pearlin, L.I. & Schooler, C., "The structure of coping," J Health Soc Behav, Vol.19, 1978, pp.2~21.

136) Jalowiec, A. & Powers, M.J., op. cit.

137) Stuart, J.C. & Brown, B.M., "The relationship of stress and coping ability to incidence of disease and accidents," J Psychosom Res, Vol.25, No.4, 1981, pp.255~260.

138) 최영희,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의 스트레스 및 그 적응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1978.

139) 이경숙, 임현빈,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 행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제10권, 제1호, 1980, pp.57~64.

140) 최영희, "입원환자와 일반인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처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간호학회지, 제12권, 제2호, 1982, pp.91~104.

141) 이경숙, "교원압박환자와 비교원압박환자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처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간호학회지, 제13권, 제2호, 1983, pp.58~69.

지지체제(supportive systems)^{142)~155)}, 성격(personality)^{156)~159)}, 통제위(locus of control)¹⁶⁰⁾ 등이 연구대상 이 된 주요 변수들이다. 이들 변수가 생활사건과 질병 간의 관계에 중재변수로서 작용한다는 견해, 독립변수 로써 작용한다는 견해, 및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 일치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로 인 해 진술 및 개념들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고, causality 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2. 조작적·실증적인 적의성

생활사건은 주어진 시간내에 이를 경험한 빈도수 (frequency, 또는 number)와 역동성(magnitude)으로써 평가된다. 빈도수로 측정된 연구에서는 4개의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보통정도의 생활변화가 있는 것으로 간 주하였다.^{151)~153)}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가 사건의 수보 다는 역동성으로써 측정하였다. 즉 1~150 LCU(life change unit)일 때는 유의한 생활변화가 없으며, 150~ 199LCU일 때는 약간의 생활변화가, 200~299LCU일 때는 보통정도의 생활변화가, 300LCU이상이면 커다란 생활변화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¹⁶⁴⁾ LCU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적응이 요구되며 따라서 더욱 많은 스트레스 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과거의 연구대상자들에 의 해 보고된 것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빈도수 및 LCU 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험한 생활사건의 평균

- 142) Nuckolls, K.B., Cassel, J., & Kaplan, B.H., "Psychosocial assets, life crisis and the prognosis of pregnancy", *Am J Epidemiology*, Vol.95, No.5, 1972, pp.431~440.
- 143) Luborsky, L., Todd, T.C., & Katcher, A.H., "A self-administered social asserts scale for predict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illness and health," *J Psychosom Res*, Vol.17, 1973, pp.109~120.
- 144) Myers, J.K., Lindenthal, J.J., & Pepper, M.P., "Life events, social integration and psychiatric symptomatology", *J Health Soc Behav*, Vol.16, 1975, pp.421~429.
- 145)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 Med*, Vol.38, No.5, 1976, pp.300~314.
- 146) Miller, P.M., Ingham, J.G., & Davidson, S., "Life events, symptoms and social support," *J Psychosom Res*, Vol. 20, 1976, pp.515~522.
- 147) Dean, A. & Lin, N.,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Problems and prospects for systematic investiga- tion", *J Nerv Ment Dis*, Vol.165, No.6, 1977, pp.403~417.
- 148) Andrews, G., et. al., "Life event stress, social support, coping style, and risk of psychological impairment," *J Nerv Ment Dis*, Vol.166, No.5, 1978, pp.307~316.
- 149) Dohrenwend, B.S. & Dohrenwend, B.P., "Some issues in research on stressful life events," *J Nerv Ment Dis*, Vol. 166, No.1, 1978, pp.7~15.
- 150) Eaton, W.W., "Life events, social supports, and psychiatric symptoms: A re-analysis of the New Haven data," *J Health Soc Behav*, Vol.19, 1978, pp.230~234.
- 151) Lin, N., et. al., "Social support, stressful life events, and illness: A model and an empirical test", *J Health Soc Behav*, Vol.20, 1979, pp.108~119.
- 152) Paykel, E.S., Emms, E.M., et. al.,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in perperal depression", *Brit J Psychiat*, Vol. 136, 1980, pp.339~346.
- 153) Williams, A.W., Ware, J.E., & Donald, C.A., "A model of mental health,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pplic- able to general populations," *J Health Soc Behav*, Vol.22, 1981, pp.324~336.
- 154) Thoits, P.A.,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 Health Soc Behav*, Vol.23, 1982, pp.145~159.
- 155) 손경희,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에 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 156) Hendrie, H.C., Lachar, D., & Lennox, K., "Personality trait and symptom correlates of life change in a psychi- atric population", *J Psychosom Res*, Vol.19, 1975, pp.203~208.
- 157) Garrity, T.F., Somes, G.W., & Marx, M.B., "Personality factors in resistance to illness after recent life changes," *J Psychosom Res*, Vol.21, 1977, pp.23~32.
- 158) Suls, J., Gastorf, J.W., & Witenberg, S.H., "Life events,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type A coronary-prone behavior pattern", *J Psychosom Res*, Vol.23, 1979, pp.315~319.
- 159) Kobasa, S.C., Maddi, S.R., & Courington, S., "Personality and constitution as mediators in the stress-illness re- lationship", *J Health Soc Behav*, Vol.22, 1981, pp.368~378.
- 160) Husaini, B.A. & Neff, J.A., op. cit.
- 161) Myers, J.K., Lindenthal, J.J., & Pepper, M.P. (1971), op. cit.
- 162) Anderson, M.D. & Pleticha, J.M., "Emergency unit patients' perceptions of stressful life events", *Nur Res*, Vol. 23, No.5, 1974, pp.378~383.
- 163) Hurst, M.W., Jenkins, C.D., & Rose, R.M., op. cit.
- 164) Luckmann, J. & Sorensen, K.C., op. cit., p.38.

빈도수가 7~10사건¹⁶⁵⁾, 평균 LCU는 300이상으로¹⁶⁶⁾, 모두 과거연구에서 많은 생활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되었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생활사건의 조작적 정의는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고 이론적 정의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이론적 정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해 손상관계가 획득될 수 있는 조작적 정의 즉 스트레스의 절수화가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질병발생(illness onset)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명백히 제시되지 않았다. Checklist 및 Scale^{167)~175)}, 전문가가 설정한 진단기준^{176)~183)}, 병원기록지^{184)~186)}, 진료소 방문¹⁸⁷⁾ 등이 질병발생의 조작적 정의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질병발생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애매함 내지는 불일치로 인하여, 경험한 스트레스는 질병의 수 및 심각도에 관련된다고 제시한 연구^{188)~191)}, 질병의 원인론(aetiology), 예측인자(predictor) 또는 촉진요인(precipitating factors)이라고 지적한 연구^{192)~204)} 및 현재의 증상(수, 형태, 심각도, 약화등)에 관련된다고

- 165) Jalowiec, A. & Powers, M.J., op. cit.
 166) Jones, A.C., "Life change and psychological distress as predictors of pregnancy outcome," *Psychosom Med*, Vol. 40, No.5, 1978, pp.405~409.
 167) Myers, J.K., Lindenthal, J.J., & Pepper, M.P.(1971), op. cit.
 168) Wyler, A.R., Masuda, M., & Holmes, T.H., "Magnitude of life events and seriousness of illness", *Psychosom Med*, Vol.33, No.2, 1971, pp.115~122.
 169) Uhlenhuth, E.H. & Paykel, E.S., op. cit.
 170) Selzer, M.L. & Vinokur, A., "Life events, subjective stress, and traffic accidents," *Am J Psychiat*, Vol.131, No.8, 1974, pp.903~906.
 171) Uhlenhuth, E.H., et. al., op. cit.
 172) Myers, J.K., Lindenthal, J.J., & Pepper, M.P. (1975), op. cit.
 173) Roskies, E., Iida-Miranda, M.L., & Strobel, M.G., op. cit.
 174) Grant, I., Sweetwood, H.L., et. al., op. cit.
 175) Cooke, D.J. & Greene, J.G., op. cit.
 176) Rahe, R.H., Meyer, M., et. al., "Social stress and illness onset," *J Psychosom Res*, Vol.8, 1974, p.35.
 177) Brown, G.W. & Birley, J.L.T., "Crises and life changes and the onset of schizophrenia," *J Health Soc Behav*, Vol.9, 1968, p.205.
 178) Paykel, E.S., Myers, J.K., et. al., op. cit., p.754.
 179) Cohen, S.I. & Hajioff, J., "Life events and the onset of acute closed-angle glaucoma", *J Psychosom Res*, Vol.16, 1972, p.337.
 180) Thomson, K.C. & Hendrie, H.C., "Environmental stress in primary depressive illness," *Arch Gen Psychiat*, Vol. 26, 1972, p.130.
 181) Brown, G.W., et. al., "Life events and psychiatric disorders:(part 1) Some methodological issues," *Psychol Med*, Vol.3, 1973, pp.74~76.
 182) Rahe, R.H., Bennett, L., et. al., "Subjects' recent life changes and coronary heart disease in Finland," *Am J Psychiat*, Vol.130, No.11, 1973, p.1222.
 183) Jacobs, S. & Myers, J., op. cit., p.76.
 184) Hudgens, R.W., Morrison, J.R., & Barchha, R.G., "Life events and onset of primary affective disorders: A study of 40 hospitalized patients and 40 controls," *Arch Gen Psychiat*, Vol.16, 1967, pp.134~145.
 185) Spilken, A.Z. & Jacobs, M.A., "Prediction of illness behavior from measures of life crisis, manifest distress and maladaptive coping," *Psychosom Med*, Vol.33, No.3, 1971, p.253.
 186) Rahe, R.H., Fløistad, I., et. al., op. cit., pp.173~174.
 187) Rahe, R.H., Biersner, R.J., & Ryman, D.H., op. cit., p.394.
 188) Wyler, A.R., Masuda, M., & Holmes, T.H., op. cit.
 189) Rahe, R.H., Fløistad, I., et. al., op. cit.
 190) Roskies, E., Iida-Miranda, M.L., & Strobel, M.G., op. cit.
 191) Schless, A.P., Teichman, A., et. al., op. cit.
 192) Rahe, R.H., Meyer M., et. al., op. cit., pp.35~44.
 193) Rahe, R.H. & Arthur, R.J., "Life-change patterns surrounding illness experience," *J Psychosom Res*, Vol.11, 1967, pp.341~345.
 194) Brown, G.W. & Birley, J.L.T., op. cit., pp.203~214.
 195) Hudgens, R.W., Robins, E., & DeLong, W.B., op. cit.
 196) Cohen, S.I. & Hajioff, J., op. cit., pp.335~341.
 197) Rahe, R.H., Biersner, R.J., & Ryman, D.H., op. cit.

보고한 연구^{205)~213)}가 있다. 기타 치료기관 또는 진료소 방문^{214)~215)}과, 돌봄을 구하는 행동(care-seeking behavior)^{216)~218)}과도 관계된다고 지적한 연구도 있다.

다음, 실증적인 적의성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가 생활사건과 질병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²¹⁹⁾ 반하여, 상관관계가 없거나^{220)~223)} 또는 부분적인 관계만 있다고^{224)~228)} 지적한 연구들도 다수가 있다.

생활사건과 질병간의 상관관계의 기여는 연구의 방

법론적인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본다.

첫째, 표본의 특성, 크기, 및 대조군의 선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별한 모집단에 제한할 경우^{226)~227)}, 도구가 발달된 표본의 특성과 부합되지 않는 표본을 사용할 경우^{228)~229)}, 표본의 크기가 적은 경우^{230)~232)}, 대조군이 부적절한 경우^{232)~238)}에 생활사건과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둘째, SRRS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간의 제한이 문

- 198) Thomson, K.C. & Hendrie, H.C., op. cit., pp.130~132.
- 199) Brown, G.W., et. al., op. cit., pp.74~87.
- 200) Rahe, R.H., Bennett, L., et. al., op. cit., pp.1222~1226.
- 201) Selzer, M.L. & Vinokur, A., op. cit.
- 202) Lundberg, U., Theorell, T., & Lind, E., op. cit.
- 203) Williams, C.C., et.al., "Pregnancy and life change," J Psychosom Res, Vol.19, 1975, pp.123~129.
- 204) Jacobs, S. & Myers, J., op. cit.
- 205) Hudgens, R.W., Morrison, J.R., & Barchha, R.G., op. cit.
- 206) Myers, J.K., Lindenthal, J.J., & Pepper, M.P. (1971), op. cit.
- 207) Myers, J.K., et. al., op. cit.
- 208) Uhlenhuth, E.H. & Paykel, E.S., op. cit.
- 209) Grant, I., Kyle, G.C., et. al., op. cit.
- 210) Schless, A.P., Schwartz, L., et. al., op. cit.
- 211) Myers, J.K., Lindenthal, J.J., & Pepper, M.P. (1975), op. cit.
- 212) Tutone, R.M., "Correlations of illness susceptibility," Brit J Psychol, Vol.50, 1977, pp.79~86.
- 213) Cooke, D.J. & Grcene, J.G., op. cit.
- 214) Hudgen, R.W., Morrison, J.R., & Barchha, R.G., op. cit.
- 215) Rahe, R.H., Biersner, R.J., & Ryman, D.H., op. cit.
- 216) Jacobs, M.A., et. al., "Life stress and respiratory illness," Psychosom Mcd, Vol.32, No.3, 1970, pp.233~242.
- 217) Spilken, A.Z. & Jacobs, M.A., op. cit., pp.251~264.
- 218) Bieliauskas, L.A. & Strugar, D.A., "Sample size characteristics and scores on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 Psychosom Res, Vol. 20, 1976, pp.201~205.
- 219) 고성희, "스트레스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 I. 생활사건과 질병에 대한 선행연구", 전북의대부속간접논문집, 제 8집, 1982, pp.92~101.
- 220) Rubin, R.T., Gunderson, E.K.E., & Arthur, R.J., op. cit.
- 221) Goldberg, E.L. & Comstock, G.W., op. cit., pp.146~158.
- 222) Mattila, V.J. & Salokangas, R.K.R., op. cit., pp.167~174.
- 223) Schless, A.P., et. al., "Life events and illness: A three year prospective study," Brit J Psychiat, Vol.131, 1977, pp.26~34.
- 224) Forrest, A.D., Fraser, R.H., & Priest, R.G., "Environmental factors in depressive illness", Brit J Psychiat, Vol. 111, 1965, pp.243~253.
- 225) Paykel, E.S., Myers, J.K., et. al., op. cit.
- 226) Myers, J.K., et. al., op. cit., pp.398~399.
- 227) Schless, A.P., et. al., op. cit., pp.32~33.
- 228) Caplan, R.D., op. cit., p.247.
- 229) Chiriboga, D.A., op. cit., p.420.
- 230) Myers, J.K., et. al., op. cit.
- 231) Bieliauskas, L.A. & Strugar, D.A., op. cit., pp.201~204.
- 232) Schless, A.P., et. al., op. cit.
- 233) Forrest, A.D., Fraser, R.H., & Priest, R.G., op. cit.
- 234) Brown, G.W., "Life-events and psychiatric illness: Some thoughts on methodology and causality", J Psychosom Res, Vol.16, 1972, pp.311~320.
- 235) Brown, G.W., et.al., op. cit.
- 236) Serban, G., "Stress in schizophrenics and normals," Brit J Psychiat, Vol.126, 1975, pp.397~407.
- 237) Schless, A.P., Teichman, A., et.al., op. cit., pp.19~22.
- 238) Murphy, E. & Brown, G.W., "Life events, psychiatric disturbance and physical illness", Brit J Psychiat, Vol.136, 1980, pp.326~338.

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retrospective study일 경우에 특히 반응자의 기억의 한계와 관련된다. 평균적으로 관련된 건강변화는 약 6개월 정도의 생활 스트레스 후에 일어났다고 주장되고 있다.²³⁹⁾²⁴⁰⁾ 그러나 아직도 연구자에 따라 1일²⁴¹⁾부터 10년²⁴²⁾에 이르는 다양한 기간 제한을 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의 생활변화에 대한 보고는 관찰기간에 근접할수록 증가되었으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감소되었다.^{243)~247)}는 주장이 있다. Thurlow는 SRE에 대한 test-retest를 2주 간격을 두고 시행하였을때 신뢰도가 높았는데($r=.70\sim.95$), 2년 간격일 경우는 상당히 낮았다고($r=.03\sim.53$) 보고하였다.²⁴⁸⁾ Horowitz 등은 경험한 생활사건에 대해 6개월 간격을 두고 test-retest를 시행한 결과, $r=.81$ 로 보고(reporting)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결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⁴⁹⁾ 그 이유로는 잊음(forgetting)²⁵⁰⁾²⁵¹⁾, 속임

(deception) 또는 은폐(concealment),²⁵²⁾²⁵³⁾ 생활사건을 서술한 단어의 애매함^{254)~256)}, 질병을 설명하기 위해 과장되거나 사전을 회상하거나 또는 보고할 가능성^{257)~259)}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기억력의 편이 가능성이 없으며²⁶⁰⁾,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한 연구도 있다.²⁶¹⁾²⁶²⁾ 이것은 생활사건의 심각도가 기억의 기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²⁶³⁾, 급성 질환과 만성질환간의 차이²⁶⁴⁾²⁶⁵⁾일 수도 있다고 추정되거나 더 자세한 탐색이 요구된다.

환자와 배우자, 친척, 동료등 의미있는 사람(significant person)을 대상으로 환자의 생활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지적되었다. 환자에게 발생된 생활사건에 대해 환자와 의미있는 사람간에 동의율이 높았다는 연구보고^{266)~268)} 및 반대로 동의율이 낮았다고 보고한 연구^{269)~272)}도 있다. 이튼

239) 고성희(1978), 전제서, p. 5.

240) 고성희(1982), 전제서, pp.92~93.

241) Cline, D.W., "A stress-value scale for officer candidates," J Psychosom Res, Vol.17, 1978, pp.16~17.

242) Rahe, R.H., Meyer, M., et. al., op. cit., p.35.

243) Jacobs, M.A., et. al., op. cit., p.238.

244) Brown, G.W., et. al., op. cit., pp.82~85.

245) Rahe, R.H., Fløistad, I., et. al., op. cit., pp.173~174.

246) Horowitz, M., et. al., op. cit., p.422.

247) Papa, L.L., op. cit., pp.366~368.

248) Thurlow, H.J., op. cit., pp.77~78.

249) Horowitz, M., et. al., op. cit., pp.423~425.

250) Ibid.

251) Schless, A.P. & Mendels, J., op. cit., p.567.

252) Horowitz, M., et. al., op. cit.

253) Yager, J., et. al., "Life event reports by psychiatric patients, nonpatients, and their partners," Arch Gen Psychiat, Vol.38, 1981, pp.344~347.

254) Horowitz, M., et. al., op. cit.

255) Brown, G.W. (1981), op. cit., p.464.

256) Yager, J., et. al., op. cit.

257) Brown, G.W. & Biley, J.L.T., op. cit., pp.204~210.

258) Brown, G.W., et. al., op. cit., p.76.

259) Goldberg, E.L. & Comstock, G.W., op. cit., p.147.

260) Rahe, R.H. & Paasikivi, J., op. cit., pp.33~38.

261) Wyler, A.R., Masuda, M., & Holmes, T.H., op. cit.

262) Garrity, T.F., Marx, M.B., & Somes, G.W., "The influence of illness severity and time since life change on the size of the life change-health change relationship", J Psychosom Res, Vol.21, 1977, pp.377~382.

263) Jenkins, C.D., Hurst, M.W., & Rose, R.M., "Life changes: Do people really remember?," Arch Gen Psychiat, Vol.36, 1979, p.383.

264) Wyler, A.R., Masuda, M., & Holmes, T.H., op. cit.

265) Jalowiec, A. & Powers, M.J., op. cit.

266) Brown, G.W. (1972), op. cit.

267) Brown, G.W., et. al., op. cit., p.80.

268) Schless, A.P. & Mendels, J., op. cit.

269) Hudgens, R.W., Robins, E., & Delong, W.B., op. cit., pp.637~642.

270) Horowitz, M., et. al., op. cit.

271) Brown, G.W. (1981), op. cit., p.463.

272) Yager, J., et. al., op. cit.

연구의 타당도는 사전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보고(reporting)의 정확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점이 의심스럽다면 연구로부터 내려진 어떤 결론도 의심스러울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로는 통계적인 분석방법의 부정확한 사용²⁷³⁾⁻²⁷⁵⁾을 들 수 있다. Rabkin 등은 집단간의 차이가 %, 또는 오폭지 통계적 유의성에 의하여 보고되었으며, 획득 상관계수가 종종 제시되지 않았고, 제시되었을 경우와 할 지라도 기껏해야 .30 이하로 생활사건과 질병에 있어서 variance의 9%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생활사건의 수에 관하여 보고할 때 흔히 집단간의 평균치(group means)에 주의가 집중되었으며, 집단내에서 점수의 변이성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부정확한 통계 분석방법으로 인하여 실제로 생활사건점수는 미배의 질병의 예측인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²⁷⁶⁾

이와같이 연구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생활사건과 질병간의 상관관계가 의문시되고 있고, 따라서 실증적인 적의성을 낮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III. 결 론

본 연구는 최근의 생활사건연구 100편을 대상으로 Hardy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론 구성에 따른 내용 분석 및 이론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 결과 이론적인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된 문제점들이 제거 또는 보완될 수 있다면 생활사건과 질병간의 관계의 본질이 더욱 정확히 규명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SRE 또는 SRRS를 번역하여 일부만을 수정, 보완한 후 내용면의 타당도 검사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문화에 적절한 측정도구의 발달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 개인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질병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이론적인 틀의 명료화, 연구설계의 프란 및 스트레스와 질병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측정도구의 개선 내지는 발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Anderson, M.D. & Pleticha, J.M., "Emergency unit patients' perceptions of stressful life events", *Nur Res*, vol. 23, No. 5, 1974, pp. 378~383.
- Andrews, G., et. al., "Life event stress, social support, coping style, and risk of psychological impairment", *J Nerv Ment Dis*, Vol. 166, No. 5, 1978, pp. 307~316.
- Bell, J.M., "Stressful life events and coping methods in mental-illness and-wellness behaviors," *Nur Res*, Vol. 26, No. 2, 1977, pp. 136~141.
- Bieliauskas, L.A. & Strugar, D.A., "Sample size characteristics and scores on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 Psychosom Res*, Vol. 20, 1976, pp. 201~205.
- Brown, G.W., "Life-events and psychiatric illness: Some thoughts on methodology and causality", *J Psychosom Res*, Vol. 16, 1972, pp. 311~320.
- Brown, G.W., "Life events, psychiatric disorder and physical illness," *J Psychosom Res*, Vol. 25, 1981, pp. 461~473.
- Brown, G.W. & Birley, J.L.T., "Crises and life changes and the onset of schizophrenia", *J Health Soc Behav*, Vol. 9, 1968, pp. 203~214.
- Brown, G.W., et. al., "Life-events and psychiatric disorders: (Part I) Some methodological issues", *Psychol Med*, Vol. 3, 1973, pp. 74~87.
- Caplan, R.D., "A less heretical view of life change and hospitalization", *J Psychosom Res*, Vol. 19, 1975, pp. 247~250.
- Chiriboga, D.A., "Life event weighting systems: A

273) Caplan, R.D., op. cit., pp. 248~249.

274) Hough, R.L., Fairbank, D.T., & Garcia, A.M., op. cit., pp. 79~81.

275) Brown, G.W. (1981), op. cit., p. 462.

276) Rabkin, J.G. & Struening, E.L., op. cit., p. 1015.

- comparative analysis", *J Psychosom Res*, Vol.21, 1977, pp.415~422.
- Cline, D.W., "A stress-value scale for officer candidates", *J Psychosom Res*, Vol. 17, 1973, pp.15~20.
-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 Med*, Vol. 38, No. 5, 1976, pp.300~314.
- Cochrane, R. & Robertson, A., "The life events inventory: A measure of the relative severity of psychosocial stressors," *J Psychosom Res*, Vol. 17, 1973, pp.135~139.
- Coddington, R.D.,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 of children", *J Psychosom Res*, Vol. 16, 1972, pp.7~18, 205~213.
- Cohen, S.I. & Hajooff, J., "Life events and the onset of acute closed-angle glaucoma", *J Psychosom Res*, Vol. 16, 1972, pp.335~341.
- Cooke, D.J. & Greene, J.G., "Types of life events in relation to symptoms at the climacterium", *J Psychosom Res*, vol. 25, 1981, pp.5~11.
- Dean, A. & Lin, N.,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Problems and prospects for systematic investigation," *J Nerv Ment Dis*, Vol.165, No. 6, 1977, pp.403~417.
- Dekker, D.J. & Webb, J.T., "Relationships of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to psychiatric patient status, anxiety and social desirability", *J Psychosom Res*, Vol. 18, 1974, pp.125~130.
- Dohrenwend, B.S., "Life events as stressors: A methodological inquiry," *J Health Soc Behav*, Vol. 14, 1973, pp.167~175.
- Dohrenwend, B.S. & Dohrenwend, B.P., "Some issues in research on stressful life events", *J Nerv Ment Dis*, Vol. 166, No. 1, 1978, pp.7~15.
- Eaton, W.W., "Life events, social supports, and psychiatric symptoms: A re-analysis of the New Haven data," *J Health Soc Behav*, Vol.19, 1978, pp.230~234.
- Fontana, A.F., "Prehospitalization coping styles of psychiatric patients: The goal-directedness of life events", *J Nerv Ment Dis*, Vol. 155, No. 11, 1972, pp.311~321.
- Forrest, A.D., Fraser, R.H., & Priest, R.G., "Environmental factors in depressive illness," *Brit J Psychiat*, Vol. 111, 1965, pp.243~253.
- Garrity, T.F., Marx, M.B., & Somes, G.W., "The influence of illness severity and time since life change on the size of the life change-health change relationship", *J Psychosom Res*, Vol. 21, 1977, pp.377~382.
- Garrity, T.F., Somes, G.W., & Marx, M.B., "Personality factors in resistance to illness after recent life changes," *J Psychosom Res*, Vol. 21, 1977, pp.23~32.
- Goldberg, E.L. & Comstock, G.W., "Life events and subsequent illness", *Am J Epidemiology*, Vol. 104, No. 2, 1976, pp.146~158.
- Grant, I., Kyle, G.C., et. al., "Recent life events and diabetes in adults", *Psychosom Med*, Vol. 36, No. 2, 1974, pp.121~128.
- Grant, I., Sweetwood, H.L., et. al., "Patterns in the relationship of life events and psychiatric symptoms over time", *J Psychosom Res*, Vol. 22, 1978, pp.183~191.
- Hamburg, D.A., "Coping behavior in life-threatening circumstances," *Psychother Psychosom*, Vol. 23, 1974, pp.13~25.
- Hardy, M.E., "Theories: Components, development, evaluation," *Nur Res*, Vol. 23, No. 2, 1974, pp.100~107.
- Harmon, D.K., Masuda, M., & Holmes, T.H.,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A cross-cultural study of Western Europeans and Americans", *J Psychosom Res*, Vol. 14, 1969, pp.391~400.
- Hendrie, H.C., Lachar, D., & Lennox, K., "Personality trait and symptom correlates of life change in a psychiatric population", *J Psychosom Res*, Vol. 19, 1975, pp.203~208.
- Holmes, T.H. & Rahe, R.H.,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 Psychosom Res*, Vol. 11, 1967, pp.213~218.
- Horowitz, M., et. al., "Life event questionnaires for measuring presumptive stress," *Psychosom Med*, Vol. 39, No. 6, 1977, pp.413~431.

- Hough, R.L., Fairbank, D.T., & Garcia, A.M., "Problems in the ratio measurement of life stress," *J Health Soc Behav*, Vol. 17, 1976, pp.70~82.
- Hudgens, R.W., Morrison, J.R., & Barchha, R.G., "Life events and onset of primary affective disorders: A study of 40 hospitalized patients and 40 controls", *Arch Gen Psychiat*, Vol. 16, 1967, pp. 134~145.
- Hudgens, R.W., Robins, E., & Delong, W.B., "The reporting of recent stress in the lives of psychiatric patients," *Brit J Psychiat*, Vol. 117, 1970, pp. 635~643.
- Hurst, M.W., Jenkins, C.D., & Rose, R.M., "The assessment of life change stress: A comparative and methodological inquiry," *Psychosom Med*, Vol. 40, No. 2, 1978, pp. 126~141.
- Husaini, B.A. & Neff, J.A., "Social cla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The role of life change events and locus of control," *J Nerv Ment Dis*, Vol. 169, No. 10, 1981, pp.638~647.
- Jacobs, S. & Myers, J., "Recent life events and acute schizophrenic psychosis: A controlled study," *J Nerv Ment Dis*, Vol. 162, No. 2, 1976, pp.75~87.
- Jacobs, M.A., et. al., "Life stress and respiratory illness", *Psychosom Med*, Vol. 32, No. 3, 1970, pp. 233~242.
- Jalowiec, A. & Powers, M.J., "Stress and coping in hypertensive and emergency room patients", *Nur Res*, Vol. 30, No. 1, 1981, pp.10~15.
- Jenkins, C.D., Hurst, M.W., & Rose, R.M., "Life changes: Do people really remember?", *Arch Gen Psychiat*, Vol. 36, 1979, pp.379~384.
- Jones, A.C., "Life change and psychological distress as predictors of pregnancy outcome", *Psychosom Med*, Vol. 40, No. 5, 1978, pp.402~412.
- Katz, J.L., et. al., "Stress, distress, and ego defenses", *Arch Gen Psychiat*, Vol. 23, 1970, pp.131~142.
- Kobasa, S.C., Maddi, S.R., & Courington, S., "Personality and constitution as mediators in the stress-illness relationship", *J Health Soc Behav*, Vol. 22, 1981, pp. 368~378.
- Komaroff, A.L., Masuda, M., & Holmes, T.H.,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A comparative study of Negro, Mexican, and White Americans", *J Psychosom Res*, Vol. 12, 1968, pp.121~128.
- Lahniers, C.E. & White, K., "Changes in environmental life event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iatric hospital admissions", *J Nerv Ment Dis*, Vol. 163, No. 3, 1976, pp.154~158.
- Leininger, M.M., "The research critique: Nature, function, and art", *Nur Res*, Vol. 17, No. 5, 1968, pp.444~449.
- Levine, S. & Scotch, N.A., *Social stress*,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70.
- Lin, N., et al., "Social support, stressful life events, and illness: A model and an empirical test", *J Health Soc Behav*, Vol. 20, 1979, pp.108~119.
- Luborsky, L., Todd, T.C., & Katcher, A.H., "A self-administered social assets scale for predict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illness and health", *J Psychosom Res*, Vol. 17, 1973, pp.109~120.
- Luckmann, J. & Sorensen, K.C., *Medical-Surgical Nursing*, 2nd ed., Saunders Co., 1980.
- Lundberg, U., Theorell, T., & Lind, E., "Life changes and myocardial infarc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life change scaling", *J Psychosom Res*, Vol. 19, 1975, pp.27~32.
- Masuda, M. & Holmes, T.H.,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A cross-cultural study of Japanese and Americans", *J Psychosom Res*, Vol. 11, 1967, pp.227~237.
- Masuda, M. & Holmes, T.H., "Life events: Perceptions and frequencies", *Psychosom Med*, Vol. 40, No. 3, 1978, pp.236~261.
- Mattila, V.J. & Salokangas, R.K.R., "Life changes and social group in relation to illness onset", *J Psychosom Res*, Vol. 21, 1977, pp.167~174.
- Miller, P.M., Ingham, J.G., & Davidson, S., "Life events, symptoms and social support," *J Psychosom Res*, Vol. 20, 1976, pp.515~522.
- Miller, T.W., "Life events scaling: Clinical methodological issues," *Nur Res*, Vol. 30, No. 5, 1981, pp.316~320A.
- Murphy, E. & Brown, G.W., "Life events, psychiatric disturbance and physical illness", *Brit J Psychiat*,

- Vol. 136, 1980, pp. 326~338.
- Myers, J.K., Lindenthal, J.J., & Pepper, M.P., "Life events and psychiatric impairment", *J Nerv Ment Dis*, Vol. 152, No. 3, 1971, pp. 149~157.
- Myers, J.K., Lindenthal, J.J., & Pepper, M.P., "Life events, social integration and psychiatric symptomatology", *J Health Soc Behav*, Vol. 16, 1975, pp. 421~429.
- Myers, J.K., et. al., "Life events and mental status: A longitudinal study" *J health Soc Behav*, Vol. 13, 1972, pp. 398~406.
- Nelson, P., et. al., "Variables in the reporting of recent life changes", *J Psychosom Res*, Vol. 16, 1972, pp. 465~471.
- Nuckolls, K.B., Cassel, J., & Kaplan, B.H., "Psychosocial assets, life crisis and the prognosis of pregnancy", *Am J Epidemiology*, Vol. 95, No. 5, 1972, pp. 431~440.
- Papa, L.L., "Responses to life events as predictors of suicidal behavior", *Nur Res*, Vol. 29, No. 6, 1979, pp. 362~369.
- Paykel, E.S., Emms, E.M., et. al.,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in puerperal depression", *Brit J Psychiat*, Vol. 136, 1980, pp. 339~346.
- Paykel, E.S., Myers, J.K., et. al., "Life events and depression," *Arch Gen Psychiat*, Vol. 21, 1969, pp. 753~760.
- Paykel, E.S., Prusoff, B.A., & Myers, J.K., "Suicide attempts and recent life events: A controlled comparison", *Arch Gen Psychiat*, Vol. 32, 1975, pp. 327~333.
- Payne, R.L., "Recent life changes and the reporting of psychological states", *J Psychosom Res*, Vol. 19, 1975, pp. 99~103.
- Pearlin, L.I. & Schooler, C., "The structure of coping", *J Health Soc Behav*, Vol. 19, 1978, pp. 2~21.
- Polit, D.F. & Hungler, B.P., *Nursing Research: Principles and methods*, New York, Lippincott Co., 1978.
- Rabkin, J.G. & Struening, E.L., "Life events, stress, and illness", *Science*, Vol. 194, 1976, pp. 1013~1020.
- Rahe, R.H., "Multi-cultural correlations of life change scaling: America, Japan, Denmark and Sweden", *J Psychosom Res*, Vol. 13, 1969, pp. 191~195.
- Rahe, R.H., "Subjects' recent life changes and their near-future illness reports: previous work and new directions of study," In *Conceptual models for nursing practice*, eds. by piehl J.P. and Roy, S.C., Prentice-Hall, A.C.C., 1974, pp. 63~81.
- Rahe, R.H. & Arthur, R.J., "Life-Change patterns surrounding illness experience," *J Psychosom Res*, Vol. 11, 1967, pp. 341~345.
- Rahe, R.H., Bennett, L., et. al., "Subjects' recent life changes and coronary heart disease in Finland," *Am J Psychiat*, Vol. 130, No. 11, 1973, pp. 1222~1226.
- Rahe, R.H., Biersner, R.J., & Ryman, D.H., "Psychosocial predictors of illness behavior and failure in stressful training", *J Health Soc Behav*, Vol. 13, 1972, pp. 393~397.
- Rahe, R.H., Fleistad, I., et. al., "A model for life changes and illness research: Cross-cultural data from the Norwegian Navy," *Arch Gen Psychiat*, Vol. 31, 1974, pp. 172~177.
- Rahe, R.H., Lundberg, U., et. al.,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A comparative study of Swedes and Americans," *J Psychosom Res*, Vol. 15, 1971, pp. 241~249.
- Rahe, R.H., Meyer, M., et. al., "Social stress and illness onset," *J Psychosom Res*, Vol. 8, 1964, pp. 35~44.
- Rahe, R.H. & Paasikivi, J., "Psychosocial factors and myocardial infarction-II. An outpatient study in Sweden," *J Psychosom Res*, Vol. 15, 1971, pp. 33~39.
- Roskies, E., Iida-Miranda, M.L., & Strobel, M.G., "The applicability of the life events approach to the problems of immigration," *J Psychosom Res*, Vol. 19, 1975, pp. 235~240.
- Rubin, R.T., Gunderson, E.K.E., & Arthur, R.J., "Life stress and illness patterns in the U.S. Navy-V. Prior life change and illness onset in a battleship's crew," *J Psychosom Res*, Vol. 15, 1971, pp. 89~94.

- Ruch, L.O.,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life change," *J Health Soc Behav*, Vol. 18, 1977, pp.71~83.
- Ruch, L.O. & Holmes, T.H., "Scaling of life change: Comparison of direct and indirect methods", *J Psychosom Res*, Vol. 15, 1971, pp.221~227.
- Schless, A.P. & Mendels, J., "The value of interviewing family and friends in assessing life stressors," *Arch Gen Psychiat*, Vol. 35, 1978, pp.565~567.
- Schless, A.P., Schwartz, L., et. al., "How depressives view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Brit J Psychiat*, Vol. 125, 1974, pp.406~410.
- Schless, A.P., Teichman, A., et. al., "The role of stress as a precipitating factors of psychiatric illness," *Brit J Psychiat*, Vol. 130, 1977, pp.19~22.
- Schless, A.P., et. al., "Life events and illness: A three year prospective study," *Brit J Psychiat*, Vol. 131, 1977, pp.26~34.
- Selzer, M.L. & Vinokur, A., "Life events, subjective stress, and traffic accidents," *Am J Psychiat*, Vol. 131, No. 8, 1974, pp.903~906.
- Serban, G., "Stress in schizophrenics and normals" *Brit J Psychiat*, Vol. 126, 1975, pp.397~407.
- Spilken, A.Z. & Jacobs, M.A., "Prediction of illness behavior from measures of life crisis, manifest distress and maladaptive coping", *Psychosom Med*, Vol. 33, No. 3, 1971, pp.251~264.
- Stuart, J.C. & Brown, B.M., "The relationship of stress and coping ability to incidence of diseases and accidents", *J Psychosom Res*, Vol. 25, No. 4, 1981, pp.255~260.
- Suls, J., Gastorf, J.W., & Witenberg, S.H., "Life events,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type A coronary-prone behavior pattern," *J Psychosom Res*, Vol. 23, 1979, pp.315~319.
- Theorell, T. & Rahe, R.H., "Psychosocial factors and myocardial infarction—I. An inpatient study in Sweden," *J Psychosom Res*, Vol. 15, 1971, pp.25~31.
- Thoits, P.A.,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 Health Soc Behav*, Vol. 23, 1982, pp.145~159.
- Thomson, K.C. & Hendrie, H.C., "Environmental stress in primary depressive illness," *Arch Gen Psychiat*, Vol. 26, 1972, pp.130~132.
- Thurlow, H.J., "Illness in relation to life situation and sick-role tendency", *J Psychosom Res*, Vol. 15, 1971, pp.73~88.
- Tornay, R.D., "Nursing Research—The road ahead", *Nur Res*, Vol. 26, No. 6, 1977, pp.404~407.
- Tutone, R.M., "Correlations of illness susceptibility", *Brit J Psychol*, Vol. 50, 1977, pp.79~86.
- Uhlenhuth, E.H., et. al., "Symptom intensity and life stress in the city", *Arch Gen Psychiat*, Vol. 31, 1974, pp.759~764.
- Uhlenhuth, E.H. & Paykel, E.S., "Symptom intensity and life events," *Arch Gen Psychiat*, Vol. 28, 1973, pp.473~477.
- Warheit, G.J., Holzer III, C.E., & Schwab, J.J., "An analysis of social class and racial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atology: A community study," *J Health Soc Behav*, Vol. 14, 1973, pp.291~299.
- Williams, A.W., Ware, J.E., & Donald, C.A., "A model of mental health,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pplicable to general populations", *J Health Soc Behav*, Vol. 22, 1981, pp.324~336.
- Williams, C.C., et. al., "Pregnancy and life change", *J Psychosom Res*, Vol. 19, 1975, pp.123~129.
- Wyler, A.R., Masuda, M., & Holmes, T.H., "Magnitude of life events and seriousness of illness", *Psychosom Med*, Vol. 33, No. 2, 1971, pp.115~122.
- Yager, J., et. al., "Life event reports by psychiatric patients, nonpatients, and their partners," *Arch Gen psychiat*, Vol. 38, 1981, pp.343~347.
- 고성희,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의 스트레스 및 그 적응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1978.
- 고성희, "스트레스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I. 생활사건과 질병에 대한 선행연구", 전북의대부속간호학논문집, 제 8집, 1982, pp.90~103.
- 김수지, 간호학이론 <6-16>, 간협신보, 1980.12.4—

·1981. 2. 26.
 김의숙, “간호 이론의 발달과 활용”, 간호학회지, 제 10권, 제 1호, 1980, pp. 5~7.
 손경희,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에 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이경옥, “고혈압환자와 비고혈압환자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대처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간호학회지, 제 13권, 제 2호, 1983, pp. 58~69.

이평숙, 임현빈,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행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제 10권, 제 1호, 1980, pp. 57~64.
 전산초, 김조자, 유지수, 간호과정과 기초이론, 대한간호협회출판부, 1981.
 최영희, “입원환자와 일반인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대처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간호학회지, 제 12권, 제 2호, 1982, pp. 91~104.

<Abstract>

Critical Analysis on the Life Events Research

—Centered on the latest 100 theses—

Sung Hee Ko

(Nursing Junior College of Medical School)
 (Jeonbu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tried with the purpose of using this one as the basic data of future researches through content analysis according to structure of theory and criteria for evaluating theories, which is based on Hardy's standard.

As a result, there were a lot of problems i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orientation. If those problems can be removed and refined, the nature of relation between life events and illness will be examined clearly.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es can be shown.

1. The clarification of theoretical framework, the refinement of research design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variables influenced by the relation between life events and illness must be carried out.

2. The development of measuring instruments which are suitable for the character of our culture, must be carried out.